

醫部全錄의 編輯體制와 主題分類

백상용 ·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Abstract

A Study on Composition and Content of Uibujeolok [醫部全錄]

Back Sangryong, Ahn Sang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Uibujeolok』 is a part of 『Gogeumdoseojibseong[古今圖書集成]』 edited in 1726 Chinese Ching[清] Dynasty. It refers 『Uibu[醫部]』 included in 『Bakmulhwipyeon · Yesuljeon-Ha[博物彙編 · 藝術典下]』, and is composed of 520 volumes with 141 chapters. Though the name of Eubujeolok is used in most printed editions, the proper name was 『Uibujibseong[醫部集成]』 according to the original text of the copper type printing. Each category consists of 13 parts including Commentary, Diagnosis, and Organs and Bowels etc. And each chapter follows identical structure with categories. This composition type of 『Uibujibseong』 is similar with that of 『Dong-uibogam[東醫寶鑑]』 which was published 130 years ahead, but different from those of clinical books which published in China until then. Unusually there is no chapter dealing with Chinese herbs and acupuncture.

Key words : Uibujeolok[醫部全錄], Uibu[醫部], Uibujibseong[醫部集成]

I. 序 論

본 서는 중국清代雍正 4년(1726)에 陳夢雷 등이 편찬한 『古今圖書集成』 중 일부분으로, 『博物彙編 · 藝術典下』에 들어있는 醫部彙考 및 醫部總論 · 醫部醫術名流列傳 · 醫部藝文 · 醫部紀事 · 醫部外編 등을 통칭하며, 총 520권 141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서를 ‘醫部全錄’으로 명명한 정확한 이유나 근거는

알 수 없지만, 人民衛生出版社본의 「出版者的話」에 보면, ‘醫部全錄’은 『古今圖書集成』 중 일부분으로 「博物彙編 · 藝術典」의 下에 예속되어 있으며, 1959년에 ‘醫部’만을 선별하여 출판할 때 『古今圖書集成 · 醫部全錄』이라고 하여, ‘醫部全錄’을 정식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 藝文印書館에서 출판한 책에는 ‘醫部全書’로 명명되어 있어 의심의 여지가 많다. 본판에는 옛 銅活字版을 그대로 影印하여 收載하고

있는데, 欽定古今圖書集成 중의 醫部만을 節錄하여 놓았음을 알 수 있으니, 醫部集成으로 명명하는 것이 본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서의 바른 책명은 ‘醫部集成1)’으로 약칭함이 마땅하다.

본서는 분량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醫方類聚』와 비교할 수 있는 광대한 분량이며, 成書 이전(淸初) 중국 醫學大家들의 著作을 匯集하여 편찬하고2), 또 독특한 編制形式을 취하였기 때문에, 당시 중국의 의료상황과 사회적 관심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본서에 대한 醫史學的 가치나, 編纂方式의 특징, 내용의 지향점 등 본격적인 연구는 우리나라나 중국을 막론하고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한 듯 하다. 다만 成輔社에서 1982년에 영인한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의 서두에, 「出版者的話」라는 題下에 본 서를 교정하여 출판하게 된 과정과 이유, 編纂年度 및 내용별 大分類, 引用書目 등에 대하여 간략히 밝히고, 다시 각 내용별 大分類의 앞에 「內容提要」를 달아 각 類別 소속 分門)에 대하여 대강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소개가 너무 간략하고, 編制의 특징이나 大分類를 하게 된 동기나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본 서의 全貌와 학술적·임상적 가치를 파악하는데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연구가 미흡한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본 서가 어느 한 저자의 일관된 사상이나 연구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시대나 특정인의 사상 및 업적을 대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의학적 가치가 떨어진 다. 둘째,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 특별한 해석이나 고찰 없이 수록되어 있어, 연구나 학습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全書體系의 저작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지만, 유관 내용을 分析하여 필요한 내용만 시대순으

로 엮어 놓은 본 서는 조금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나 중국을 막론하고 본 서의 특징이나 편제·내용상 장단점 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선인들의 공적과 본서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서를 총체적 내용의 특징에 따라 몇 개의 분야로 재분류하고, 다시 분야별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편집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의학의 분과별 연구에 있어서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서의 전산화 작업에 붙여 연구나 학습하고자 한 이에게 조금이나마 편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全體的인 編制와 特徵

醫部는 분량이 총 520권에 이르고, 총 141개의 세부 分門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 인용하거나 참고한 서적이 120여종에 달하며, 시대적으로 『黃帝內經』4)이후 가장 뒤시대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陳士鐸의 『石室秘錄』(1687)까지 거의 2000년 기간의 저작들을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고금을 망라한 그 방대함과 세부적인 분류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나라의 『醫方類聚』 등 몇 책을 제외하고는 비교할 것이 없다.

본 단에서는 醫部 전문의 편제상 타당성과 한의학의 體系 및 分類 방식에 입각하여, 有關 分門들을 회집하여 몇 개의 분야로 묶어보고, 다시 각 分門들의 편제형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大分類目次’가 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인 면모를 조감할 수 없는 본서의 미비점을 보충할 수 있으며, 醫部 전체의 입장에서 세분화된

1) 곧 ‘醫部’의 古今圖書‘集成’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후 ‘醫部’로 略稱한다.

2) 약 120여종의 저서를 인용하고 있다.

3) 본 책은 編制를 세움에 있어, 大分類(上位編制)와 小分類(下位編制)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某某門’이라는 제목을 붙여 각 門의 수록내용을 지시하고 있을 뿐이다.

4) 이후 『內經』으로 약칭하며, 『素問』이나 『靈樞經』을 지칭할 때는 따로 『內經』이라는 호칭을 덧붙이지 않는다.

각 分門들의 성격과 편제방식을 개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근거를 줄 것이다. 또 다른 全書들과 비교·고찰할 수 있는 指標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編制形式 및 主題別 分類

본 全錄의 편제상 내용별 大分類에 대하여 人民衛生出版社 판본(1985) 등에는 醫經註釋(1~70권), 脈法·外診法(71~92권), 臟腑身形(93~216권), 諸疾(217~358권), 外科(359~380권), 婦科(381~400권), 兒科(401~500권), 總論·列傳·藝文·紀事·雜錄·外編(501~520권) 등 8개의 分野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분류한 근거에 대해서 뚜렷한 언급이 없으며, 또 이러한 분류 자체가 일견 어떤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너무 고식적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醫部만의 특징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고, 한의학의 체계상 중요한 分科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지 못해, 본 醫部の 편찬자가 각 세부 分門들을 분과한 의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醫部の 편제는 書籍別 編制가 아니라, 한의학의 체계방식에 따라 分科 및 病證의 특징을 위주로 하여, 유관한 諸家の 論說들을 그들의 저서로부터 선별·분류하여 각 門으로 회집하고 있다. 이러한 편제방식은 중국의 『千金方』이나 『聖濟總錄』, 『醫學綱目』, 『醫學入門』 등과 우리나라의 『醫方類聚』, 『東醫寶鑑』 등 임상총서와 類를 같이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千金方』이나 『聖濟總錄』 등 몇몇 임상총서는 한의학의 이론체계를 따라 순차를 정하기 보다, 多發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病證들 순서대로 편차를 정하고 있으며, 『醫學綱目』 같은 경우는 제반 病證을 각 臟腑別로 귀속시켜 수록하는 臟腑辨證分類方式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본 醫部는 『醫學入門』이나 『東醫寶鑑』처럼 기본개념부터 각 分科의 病證 및 치료법까지 순차적으로 수록하여, 학습과정의 일반적인 순서를 따라 각 分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편제방식을 선택하였다. 또 한의학의 근간 醫書

즉 經書라고 할 수 있는 『黃帝內經』의 『素問』과 『靈樞經』 및 『難經』·『傷寒論』 등은 전문을 가감없이 수록하고, 명망있는 注家の 註釋을 附記하여, 한의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 및 연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에 종합적인 면목을 살펴보기 위해, 세분화된 各門들을 다시 중요 분과나 내용상 유사점에 따라 몇 가지 분야로 묶어봄으로써, 본 醫部の 전체적인 면모에 대한 조감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의학의 原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경전들을 한 分野로 묶을 수 있으니, 이를 醫經註釋分野(1~70권)로 이름할 수 있다. 여기에는 『素問』과 『靈樞經』·『難經』·『傷寒論』 등과 그 주석을 포함할 수 있다. 단 『傷寒論』은 「傷寒門」이라는 편제로 권 335~358에 별도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診斷分野(71~92권)로 切診을 수록하고 있는 「脈診」과 나머지 診斷法(望·聞·問 등)에 대하여 수록하고 있는 「外診法」을 포괄한다. 셋째, 臟腑分野(93~105권)로 한의학 生機論의 핵심인 臟腑에 대한 제가의 論說를 수록하고 있는 「臟腑門」이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身形經絡分野(106~110)로 身形 즉 인체 각 부위의 형태 및 기능, 部位間 骨度の 長短 등과 身形에서 分布, 流注하는 經絡에 대한 論說를 수록하고 있는 「經絡門」·「身形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째, 運氣分野(111~121)로 運氣에 대한 제가의 論說를 수록하고 있으며, 「運氣門」이 여기에 속한다. 여섯째, 諸疾病分野(122~329)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病證에 대하여 頭·面·耳·目 등 부위별 分類와, 風·痺·寒 등 원인별 분류, 嘔吐·泄瀉 등 병증별 분류 등으로 순차를 잡아 수록하고 있으며, 총 74門에 이른다. 일곱째, 養生分野(330~332)로 「頤養補益門」이 여기에 해당하며, 여덟째, 種子分野(333~358)로 「種子門」이 여기에 속하고, 넓게는 婦人分野 중 「婦人子嗣門」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아홉째, 傷寒分野(335~358)로 仲景의 『傷寒論』을 原典으로 해서 제반 外感 傷寒病證에 대하여 수록하고 있으

며, 「傷寒門」이 여기에 해당한다. 열번째, 外科分野(359~380)로 癰疽·瘡瘍·斑疹·外傷 등 身形の 외면 皮膚·肌肉·筋骨 등의 損傷이나 腫大·潰爛 등을 주 症狀으로 발현하는 질환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外科 癰疽疔毒門」부터 「外科蟲獸傷門」에 이르기까지 12門에 이른다. 열한번째, 婦人分野(381~400)로 임신·출산·산후조리 및 성인 여자들에게만 별도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한 논술을 수록하고 있으며, 「婦人經脈門」부터 「婦人交腸門」까지 11門에 이르고 있다. 열두번째, 小兒分野(401~500)로 胎敎와 小兒養生 및 소아과 질환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小兒未生胎養門」부터 「小

兒瘡瘍門」까지 25門과, 痘瘡이나 發疹 등을 주 증상으로 하는 소아 전염병에 대한 논술을 수록하고 있는 「痘疹門」이 여기에 해당한다. 끝으로, 總論·列傳 등 其他 分野(501~520권)로 醫學倫理나 醫師의 마음자세, 유명 醫家들의 身上 및 業績, 유명 醫書에 대한 品評 및 醫療 逸話 등에 대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總論」·「醫術名流 列傳」·「藝文」·「紀事」·「雜錄」·「外編」 등 6門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본 醫部는 類別로 크게 13개 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도표 1】 本論과 人民衛生出版社⁵⁾의 分野別 分類形式 비교도표

1. 醫經註釋分野	面門	肉門	汗門
(1. 醫經註釋分野)	耳門	筋門	渴門
黃帝素問	目門	骨髓門	哮喘門
黃帝素問	鼻門	(4. 諸疾)	痘門
黃帝靈樞經	唇口門	風門	瘡門
扁鵲難經	齒門	痺門	厥門
2. 診斷分野	舌門	寒門	癲狂門
(2. 脈法·外診法)	咽喉門	暑門	癩門
脈法	鬚髮門	濕門	瘟疫門
外診法	頸項門	燥門	癱痿門
3. 臟腑分野	肩門	火門	虛勞門
(3. 臟腑身形)	腋門	痰門	腫脹門
臟腑門	脅門	咳嗽門	噎膈反胃門
4. 身形經絡分野	背脊門	嘔吐門	飲食門
經絡門	胸腹門	泄瀉門	積聚門
身形門	腰門	霍亂門	驚悸怔忡健忘門
5. 運氣分野	四肢門	滯下門	情志門
運氣門	前陰門	大小便門	煩躁門
6. 諸疾病分野	後陰門	淋濁遺精門	嗜臥門
頭門	皮門	血門	不得臥門

5) ‘()’ 안에 들어 있는 분류명칭은 인민위생출판사본의 형식이다.

聲音門	(5.外科)	婦人前陰諸疾門	小兒腫脹門
呃門	外科癰疽疔毒門	婦人夢與鬼交門	小兒食癖門
噫氣門	外科附骨流注門	婦人交腸門	小兒諸疳門
懊惱門	外科游風丹毒斑疹門	12.小兒分野	小兒痢門
懈惰門	外科癘瘍癩風門	(7.兒科)	小兒瘡門
太息門	外科浸淫疥癬門	小兒未生胎養門	小兒諸汗門
中蠱門	外科反花天泡楊梅門	小兒初生護養門	小兒陰病門
中毒門	外科熱瘡痺癩門	小兒診視門	小兒雜病門
中惡門	外科湯火灸凍漆瘡門	小兒臟腑形證門	小兒瘡瘍門
卒中暴死門	外科跌打金刃竹木破傷門	小兒初生諸疾門	痘疹門
諸哽門	外科蟲獸傷門	小兒頭面耳目鼻病門	痘疹門
五絕門	11.婦人分野	小兒脣口齒舌喉病門	13.其他分野
怪病門	(6.婦科)	小兒胸背手足病門	(8.其他)
諸蟲門	婦人經脈門	小兒風寒門	總論
7.養生分野	婦人子嗣門	小兒諸熱門	醫術名流列傳
頤養補益門	婦人胎前門	小兒嗽喘門	藝門
8.種子分野	婦人臨產門	小兒諸卒中門	紀事
種子門	婦人產後門	小兒驚癇門	雜錄
9.傷寒分野	婦人崩漏門	小兒吐瀉門	外編
傷寒門	婦人帶下門	小兒二便門	
10.外科分野	婦人諸乳疾門	小兒心腹痛門	

(2) 門의 編制方式

각 門의 편제 방식을 살펴보면, 醫經註釋分野와 診斷分野, 臟腑分野, 身形經絡分野, 運氣分野, 總論·列傳 및 其他分野를 제외한 제반 臨床病證 分野는 引用書籍과 內容選擇方式 및 收錄順序가 대동소이하다.

醫經註釋分野는 『素問』·『靈樞經』·『難經』 등 經典의 원문을 原書 편차순서 그대로 수록하고, 다시 문단을 분리하여 사이사이에 선별한 醫家의 註釋을 시대 순으로 선후를 잡아 附記하고 있다. 診斷分野, 臟腑分野, 身形經絡分野, 運氣分野 등은 제 醫家들의 논설 중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시대별로 수록하고, 다시 각 문단마다 小題目을 붙여 주요 논술내용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疾病分野 등 다른 분야와 비슷하지만, 자체 내용이 질병에 대한 논술이 주가 되지 못하므로, 처방이나 鍼灸·導引 등 치료와 관계된 부분이 들어 있지 않다. 단지 몇 개의 門에 鍼灸나 導引·處方 등이 간혹 부기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하여 諸疾病分野, 外科分野, 小兒分野, 婦人分野 등 임상진료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각 門別로 제 醫家의 관련있는 논술을 발췌하여 시대 순으로 수록하고, 여기에 덧붙여 單方·復方·鍼灸·導引·醫案 등 처방이나 침구치료법과 임상경험과 관련된 부분 등을 뒤쪽에 匯集하여 놓음으로써, 검색활용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인용 서목과 그 배열 순서를 보면, 『黃帝內經』에서부터 시대별로 귀감이 될 만한 醫

論들을 선별하고, 각 문단마다 소제목을 붙여 논술의 초점을 밝히고 있으며, 『黃帝內經』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기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그 病證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고 여겨지는 서적을 찾아 순차를 잡고 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2】 門別 編制形式

經絡門	朱震亨心法
黃帝素問	王履迥洄集
黃帝靈樞經	羅天益衛生寶鑑
扁鵲難經	虞搏醫學正傳
朱肱活人書	戴思恭證治要訣
李杲十書	樓英醫學綱目
朱震亨心法	王綸明醫雜著
滑壽十四經發揮	方賢奇效良方
樓英醫學綱目	李中梓醫宗必讀
李梴醫學入門	張三錫醫學準繩六要
李中梓診家正眼	薛己醫案
李時珍奇經八脈考	王肯堂證治準繩
張三錫醫學準繩六要	趙獻可醫貫
徐春甫古今醫統	喻昌醫門法律
喻昌醫門法律	吳崑醫方考
張介賓景岳全書	張介賓景岳全書
李滌身經通考	방
陳士鐸石室秘錄	단방
	침구
	도인
	의안
風門	小兒嗽喘門
黃帝素問	黃帝素問
靈樞經	錢乙小兒直訣
張機金匱要略	張從政儒門事親
華佗中藏經	朱震亨幼科全書
孫思邈千金方	魯伯嗣嬰童百問
嚴用和濟生方	虞搏醫學正傳
劉完素六書	
張從政儒門事親	
李杲十書	

薛氏保嬰撮要
徐春甫古今醫統
王肯堂證治準繩
小兒衛生總微論方
董鳳翽活幼精要

東醫寶鑑
방
단방
침구
의안

이는 시대별로 변모하거나 발전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사상이나 시각, 病證의 記述 및 진단·치료 등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고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여, 각 가의 학설과 진단·치료방법 등을 대조하거나 활용하기 쉽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각 醫家의 論旨를 치우치게 받아들이 수 있는 우려를 불식하면서, 시대별로 다양한 사상 및 치료기술과 진료경험을 연구하고 습득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의도가 들어 있다.

이러한 문별 세부 편제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東醫寶鑑』과 유사한 점이 있다. 당시까지 중국에서 나온 여러 叢書들과 달리, 『東醫寶鑑』처럼 본 醫部도 한의학의 이론체계와 臨床方法을 전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기초이론부터 臟腑·經絡 및 診斷·病證·婦人·小兒 등을 차례로 기술하고 있다. 또 諸家의 학설 중 취할 만한 것을 分節하여 수록하고, 각 門의 서두에는 반드시 『黃帝內經』 중의 관련 논술로 冒頭하고 있으며, 單方·復方 등 處方과 鍼灸·導引 등을 각 門의 말미에 匯集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중국의서로는 드물게 『東醫寶鑑』을 인용한 부분도 10곳 이상에서 보이며, 편찬년대(1726)도 『東醫寶鑑』(1596)보다 약 130년 정도만이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중간에 주목할 만 한 다른 叢書가 보이지 않는다.

2. 分野別 編制 및 內容概要

앞에서 밝혔듯이 총 13개의 分野로 분류하여 논하고

자 한다.

(1) 醫經註釋 分野

본 분야는 한의학의 대표적 原典이라고 할 수 있는 『內經』과 『難經』 등의 原文 전문을 원래의 편차대로 수록하고,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몇 註釋家의 註釋을 문단별로 附記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이는 본 醫部를 편찬한 학자들이, 한의학을 학습하기 위한 필독서적으로 『內經』과 『難經』 등을 꼽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전통은 역대 한의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고 전통이다.

이 분야를 다시 세분하면, 세 개의 분과로 나눌 수 있으니, 『素問』과 『靈樞經』⁶⁾, 『難經』 등이다.

(가) 素問과 靈樞經

『素問』과 『靈樞經』은 合稱하여 『黃帝內經』이라고 불리며, 한의학의 학술 및 임상 토대를 세운 한의학의 原典이다. 따라서 본 醫部에서 두 개의 門으로 분절하여 논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함께 논한다.

본 醫部에 수록된 『素問』은 중국 唐代 王冰이 編次를 바로잡고 여기에 補入한 運氣七篇⁷⁾을 합친 79편과, 王冰이 運氣七篇을 보입하는 과정 중에서도 누락된 『刺法論』 및 『本病論』 등 補遺 2편이 모두 들어 있어, 81편의 완비된 『素問』 원문을 수록하고 있어 현존하는 『素問』의 原形을 보여주고 있다.

6) 보통 『靈樞』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靈樞經』이라고 호칭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른다.

7) 運氣七篇大論이라고 하며, 「天元紀大論」·「五運行大論」·「六微旨大論」·「氣交變大論」·「五常政大論」·「六元正紀大論」·「至真要大論」 등이다.

본문의 주석형식은 각 편별로 다시 원문을 소주제별로 分節하고, 『素問』은 여기에 王氷·馬蒔·張志聰 등 三家의 주석을 순차적으로 부기하였으며, 『靈樞經』은 馬蒔·張志聰 등의 주석을 순차적으로 부기하고 있다. 그리고 두 책 모두 書名下에는 馬蒔의 書名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여 본 책의 정체를 밝혔고, 각 篇題下에는 다시 馬蒔와 張志聰의 解題를 순차적으로 부기하여, 각 편 명칭의 유래나 논술 내용에 대한 大體를 짐작하게 하여, 공부하는 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王氷의 素問註釋⁸⁾은 이미 失傳된 全元起本 이후 최초의 全文註釋이며, 王氷 당시(762년)에 이미 망실되었던 運氣七篇大論을 王氷이 補入하고 ‘以經注經⁹⁾’의 방식으로 주석을 붙여, 이후 『內經』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귀중한 寶典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靈樞經』에 대한 주석이 없고, 『靈樞經』의 원문만 『素問』의 주석 중에 간간히 인용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이미 『靈樞經』의 完本은 중국에서 失傳되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馬蒔의 『素問』 및 『靈樞經』 주석서의 原名은 각각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등으로, 최초로 『素問』·『靈樞經』 양 책을 모두 주석한 것이며, 宋代 林億 등이 교정한 『內經』을 底本으로 하였다.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는 王氷의 주석을 이어서 의학이론과 文字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는 인체의 經脈 및 輸穴圖 등을 附錄하여 알기 쉽도록 하였다.

張志聰은 宋明 理學家가 四書三經 등 經書에 주석을 다는 형식을 본받아, 『內經』 전서에 주석을 붙여 『素問集注九卷』과 『靈樞集注九卷』 등을 편찬하였는데, 이는

그가 제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臆斷이 많고 비약이 적지 않아 후세에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醫部에서는 이렇게 현존하는 최초의 『素問』註釋 본인 王氷의 주석과 최초의 全書 註釋 본인 馬蒔의 주석, 그리고 清代 『內經』주석의 토대를 마련한 張志聰의 주석을 함께 병기함으로써, 『內經』 해석의 시대적인 변천과 각 논술에 대한 대가들의 견해를 정밀하게 고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후세 의학자들의 『內經』 연구에 대해 학술적·역사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나) 難經

『難經』은 문답식의 체제로 81難을 논술하고 있는데, 名義는 『內經』의 논술 중 난해한 문제를 설명한다는 뜻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內經』의 난제를 밝혀낸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부 논술은 너무 圖式的이거나 臆斷한 점이 없지 않아, 모두 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저자는 중국 戰國時代 名醫 扁鵲으로 되어있지만, 후세 사람이 扁鵲을 僞託하여 命名하였다는 학설이 일반적이다.

본 醫部에서는 『難經』의 원문을 명시하고, 여기에 부기하여 元代 滑壽의 주석을 붙여 수록하였으니, 곧 滑壽의 『難經本義』 전문이다. 편제 상 특징으로는, 본 책을 「上經」(1난~30難)과 「下經」(31난~81難)으로 분리하고, 上經의 첫머리에 『難經』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그림]과 [설명]을 별도로 첨가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이해를 도왔다. 滑壽는 중국 元代의 의학자로, 『內經』과 『難經』을 깊이

8) 『次注黃帝素問』을 말한다.

9) 經文 자체의 내용을 論據로 하여, 앞뒤의 논술을 서로 비교, 분석하여 註釋을 다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註釋家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經문 본래의 涵義를 최대한 살릴 수 있다. 이후 역대 內經註釋家들의 모범형식이 되었다.

10) 본 醫部에서 원문의 내용은 王氷本을 토대로 宋代 林億 등이 교정한 전문을 거의 가감없이 수록하고 있지만, 文字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형이 있다. ‘藏’·‘府’·‘支’字 등 본래 ‘肉’部首가 붙어있지 않는 글자에 대하여, 이를 붙여 ‘臟’·‘腑’·‘肢’ 등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정확히 상고할 수는 없지만, 明代 이후 글자 본래의 의미에 덧붙여 신체의 구성분은 血肉으로 이루어진 것이더라고 하는 뜻을 명시한 의도로 보여진다.

연구하였으며, 임상도 아주 뛰어났다고 한다. 특히 『十四經發揮』를 저술하여 十二經脈 뿐만 아니라 奇經八脈 중 任脈과 督脈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하여, 후세 經絡學說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滑壽가 『難經本義』를 저술할 때, 역대 『難經』 註釋家들의 견해가 완비되지 못하다고 여겨, 각 주석가들의 주석 중 좋은 점을 취하고 여기에 校正과 辯論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자기의 견해를 밝혀 『難經』의 뜻을 크게 밝혔다. 『難經本義』는 지금까지도 『難經』을 학습하는데 가장 중요한 저서로 추앙받고 있다.

따라서 역대 『難經』연구의 현황이나 추세를 짐작하게 해주는데, 『難經本義』만큼 가치가 높은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醫部에서 이 책 전체를 수록하여 『難經』의 의미와 이치를 밝힌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醫部の 醫經註釋分野에서, 『內經』 부분은 『素問』 주석을 단 王冰의 주석과 『素問』·『靈樞經』 등의 全文註釋을 붙인 馬蒔·張志聰 등의 주석을 병술하였으며, 『難經』 부분은 前代의 학설을 종합하고 평가·보충하여 후대 『難經』연구의 토대를 닦은 滑壽의 『難經本義』를 기본 주석으로 선별하여 수록함으로써, 학술적·역사적으로 『內經』과 『難經』 등을 연구·학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2) 診斷 分野

본 분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하나는 脈診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外診 부분이다.

편제를 보면, 먼저 「脈診」門을 앞세우고, 「外診」門을 뒤로 배치하였다. 인용서적의 순서는 『內經』을 필두로 하여 성서시대별로 순차를 잡아, 본 분야의 논점과 관련

되어 있는 내용을 발췌·절취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는 본 醫部가 門別 분류에서는 유관 내용들을 취합하여 정리하고 있지만, 상제 篇次(각 門의 引用書目 순서)에 들어가면 내용보다는 저술 時期 위주로 편차를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분야의 편차에서도 대동소이하니, 본 醫部の 방대한 분량으로 볼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診斷法을 크게 望·聞·問·切 등 4개의 부분으로 구분한다고 할 때, 脈診 부분은 切診에 대한 것이고 外診 부분은 望·聞·問 등 나머지 진법을 포괄하고 있다. 일반적인 한의학 진단의 순서가 望診·聞診·問診·切診의 차례이고, 다른 醫書들의 논술방식이 보통 望診을 앞세운다는 면에서 볼 때, 본서에서 이러한 편제를 취하였다는 것은 맥진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成書 당시에 맥진이 매우 중시되었음을 알려주는 것¹¹⁾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내용분량에 있어서도, 맥진 부분은 진단분야의 거의 4/5를 차지하고, 나머지 三診 부분은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三診은 다시 望診·聞診·問診 등의 순서대로 小分類하여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진단 부분이 일정한 의미와 체계·용도가 있음을 알려준다.

본 醫部가 『內經』 이후 成書時期까지 진단에 관하여 중요한 논술을 대부분 수록하고 있다고 볼 때, 脈診의 난해함과 중요성에 대한 역대 한의계의 의식을 반영한 편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3) 臟腑 分野

본 분야는 臟腑에 대한 諸家の 논설들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다.

臟腑는 한의학 生機論의 핵심이며, 經絡理論과 더불어 한의학의 生體代謝를 설명하는 중추이므로, 서로 참

11) 『東醫寶鑑·審病』에서는, “望而知之謂之神, 聞而知之謂之聖, 問而知之謂之工, 切脉而知之謂之巧”라고 하였으며, 清代 欣澹庵이 편찬한 진단전문서인 『四診秘錄』(1887)에서도 ‘望診·聞診·問診·切診’ 등의 순서로 편제를 잡아, 일반적인 진단의 순서를 밝히고 있다.

고하여 비교하면 한의학에서 추구하는 生命機轉에 대하여 대략 알 수 있다.

본 醫部에서는 먼저 臟腑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면모를 알 수 있도록, 서두에는 臟腑學說에 대한 종합적인 논술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다시 肝·心·脾·腎 등과 여기에 表裏가 되는 六腑를 배합하여, 五行相生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金元 이후 明代에 크게 발달된 心包絡과 命門 등에 대한 논술들을 별도로 말미에 수록하여, 역대 한의학 臟腑論의 핵심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질병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鍼灸와 導引 등 장부의 虛弱이나 異常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일부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제 疾病分野처럼 「方」·「單方」 등은 수록하지 않아, 『東醫寶鑑』이나 다른 임상총서의 「臟腑門」과 달리 장부의 病證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를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편제는 장부의 전체적인 맥락을 生機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 臟腑에 대한 諸家の 세부적인 論辯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身形經絡 分野

본 분야는 「經絡門」과 「身形門」 등 2門으로 이루어져 있다. 「經絡門」은 十二經絡과 奇經八脈에 대한 제가의 논설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身形門」에서는 신체 각 부위의 명칭과 骨度法의 기준이 되는 각 부위의 長短 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經絡의 分布와 長短 등은 身形 각 부위의 명칭과 골도법에 의해 묘사되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身形에 대한 내용이 經絡에 대한 것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醫部에서는 「經絡門」을 앞세우고 「身形門」을 뒤에 배치하여 논리적 정연함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한의학의 체제에 있어서, 身形보다 經絡을 중요시한 학문적 특성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經絡의 分布나

經穴의 위치 등이 身形의 각 부위와 명칭을 통해 기술되어진다는 면에서 볼 때, 부족한 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한의학의 여러 문헌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는 身形의 각 부위 명칭과 명칭의 由來, 長短 등에 대한 부족한 자료나마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醫學綱目』이나 『東醫寶鑑』 등 叢書에서 身形을 개괄적으로 논술하는데 그치고 있는 점에 비하여, 한 걸음 나아가간 성과라고 할 만 하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經絡의 分布와 經穴 등의 위치를 상세히 기술할 수 있다면, 단순한 흐름도(流注圖)나 대략적인 위치 선정을 뛰어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運氣 分野

본 분야는 運氣에 관한 부분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運氣門」이 여기에 속한다. 대부분 『素問』의 「運氣七篇」에 나오는 運氣論說를 중심으로, 후대 각 학자들이 각자 깨우친 일부 내용을 부연하는 형태로 편차가 잡혀 있다. 이는 『內經』이후 運氣에 대한 연구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각 醫家들에 따라 가치를 부여한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다.

運氣的 기원은 『素問』 중 王冰이 補入한 「運氣七篇大論」이고, 이를 토대로 각 해의 運氣에 맞는 기본 處方을 제시하여 임상에 직접적으로 활용한 책은 陳無擇의 『三因極一病證方』이다. 예로 陳無擇은 각 해의 運氣의 盛衰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六甲年の 附子山茱萸湯, 六丙年の 黃連茯苓湯, 子午之歲의 正陽湯, 丑未之歲의 備化湯 등 22方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우리나라 조선 영조 원년(1725)에 편찬한 尹東里 『草窓訣』의 運氣處方 중 基本方들이, 陳無擇이 甲子에 따라 정해놓은 基本方들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 중 일부는 『東醫寶鑑』에서도 『三因極一病證方』을 인용서로 하여 수록하고 있다.

邵弁·汪機·汪宦 등은 六十甲子를 週期로 한 각 해의 干支配伍에 따라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원리와 질병

의 발생 등 ‘運氣七篇大論’의 논술을 충실히 따르면서 부연하고 있으며, 이에 비하여 金元四大家 중 劉完素와 張從政·李東垣 등은 六十甲子の 순환규율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없이 五行과 六氣의 相生相剋의 이치가 臟腑의 盛衰나 질병의 발생과 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분야를 통해, 劉·張 등이 비록 運氣라는 말을 차용하여 논술하고 있지만, 앞의 陳無擇이나 邵·汪 등과 軌를 달리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6) 諸疾病 分野

본 醫部에 실려있는 諸疾病分野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크게 4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身形 각 부위를 중심으로 질병을 분류한 부류로, 「頭門」·「面門」·「筋門」·「肉門」 등 24門이다. 하나는 病因 중심으로 질병을 논술한 부류로, 「風門」·「寒門」·「痰門」 등 8門이다. 하나는 질병의 病形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으로, 「嘔吐門」·「泄瀉門」·「霍亂門」 등 34門이며, 하나는 救急疾患에 관한 것으로, 「中蠱門」·「中毒門」·「卒中暴死門」 등 8門이다.

이러한 編制는 질병을 辨證하고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症狀으로 변증하기 힘들 때는 질병에 걸려있는 部位를 중심으로 변증할 수 있으며, 어떤 증상이 특징적으로 발현할 때는 그 病形을 중심으로 변증할 수 있으며, 疾病의 氣勢가 명료할 때는 병인을 중심으로 변증할 수 있으며, 구급질환으로 생명의 보전이 시급할 때는 구급부분의 조치대로 응급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身形 각 부위에 따라 질환을 분류하고 연속적으로 묶어놓은 방식은 『東醫寶鑑』을 제외한 다른 총서에서 보기 힘든 편집방식으로, 각 부위의 構造的·部位的 특성과 多發할 수 있는 질병을 함께 결합하여, 진단과 치료방법의 선택과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는데 장점이

있다¹²⁾. 또 病因에서 「痰門」과 「痺門」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록한 것은, 風寒暑濕燥火 등 六淫의 일차적 病因 이외에, 痰과 痺 등 이차적 病因이 발현하는 질병에 대한 중요성이 당시에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모든 門의 말미에 單方과 復方 등을 회집하여, 각 병증에 알맞은 처방의 검색이나 처방 자체만의 검색을 편리하게 하였으며, 鍼灸나 導引 등 여러 가지 치료법을 별도 항목으로 수록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 또는 검용하게 하였다. 더욱이 뛰어난 醫家들의 임상경험을 [醫案] 항목에서 별도로 기재하여, 선인들의 진료방식이나 辨證用藥에 대한 방식이나 경험 등을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질병의 病機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진료할 때 변증의 방식이나 치법의 선택 등을 접근하기 쉽도록 배려해 놓은 것이니, 이론학습과 임상진료 두 방면에 모두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7) 養生 分野

본 醫部에서 養生에 대한 분야는 「頤養補益門」 한 門뿐이며, 분량에 있어서도 다른 분야에 비하여 매우 작다.

일반적으로 다른 의학전서나 총서들이 양생에 대한 내용을 수록할 때, 편제의 가장 앞 부분에서 의학의 의의나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 중,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선도적인 방법으로 본 분야를 다루고 있다. 예로 『東醫寶鑑』에서는 「內景篇」의 精·氣·神·血門 등에서, 양생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양생의 목적이며, 의료의 시작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 醫部에서는 諸疾病分野의 말미에 이 분야를 한 門으로 국한시켜 수록함으로써, 양생보다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분야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또 神仙術과 관련있는 丹藥의 제법이나 복용법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는 처방 부분에서 수록하고 單方과 導引에 대한 기술을 통

12) 『聖濟總錄』 등 일부 의서에서 이러한 부위별 구분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면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

해서 짐작할 수 있으니, ‘服茯苓法·服松脂法·服雲母法·服白石英法¹³⁾ 등’ 중국 고대 神仙術에서 쓰는 丹藥들과 道家의 內丹修鍊術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延年益壽, 強筋健骨하는 의료적 건강증진 목적 이외에, 服石 등 外丹의 수련을 통한 神仙術을 추종하는 흐름이 清代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8) 種子 分野

種子 즉 求嗣分野는 일반적으로 婦人分野에 종속되어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본 醫部에서는 養生分野의 다음에 「種子門」이라는 별도의 편제를 두어, 남자의 생식불능과 개선방법에 대한 부분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婦人分野에서 「婦人子嗣門」을 별도로 편제하여, 부인의 생식불능 문제와 개선법에 대하여 따로 논하고 있다.

이는 당시 남성의 생식능력 부재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성의 문제 못지 않게 많은 중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양생과 생식능력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편제의 순차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9) 傷寒 分野

傷寒은 한의학의 外感疾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寒邪로 인한 질병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또 그 病情이 막중하여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醫史學的으로 본다면 仲景의 『傷寒論』이 한의학의 病證 및 診斷·治療法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醫書에서 傷寒에 대하여 논할 때는 傷寒分野를 별도의 편제로 해서, 仲景 『傷寒論』의 내용을 근간으로 삼고 諸家の 논설을 보익하여, 수록하고 논평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 醫部도 「傷寒門」을 별도로 편제하여, 『傷寒論』을 근간으로 하고 제가의 학설을 덧붙여 이해를 돕고 있으니, 또한 역대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다고 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淸初의 의학자인 喻昌의 『傷寒論』 註釋本인 『尚論』¹⁴⁾을 기본 교재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尚論』을 통해 『傷寒論』 전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傷寒의 각 病證 특징이나 病機, 醫論 등을 諸家の 논설 중에서 발췌하여, 『傷寒論』 원문과 상한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편제방식은 醫部の 「傷寒門」을 하나의 『傷寒論』 註釋匯編으로 취급하기에 충분하며, 醫部の 전체적인 편제형태¹⁵⁾다. 그리고 ‘中寒’으로 분류되는 병증은 본 문에서 논하지 않고, 앞의 「寒門」에 별도로 수록하여, 본 분야의 ‘傷寒’과 구별하고 있으니, 본 醫部만의 독특한 시가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상한분야는 역대 臨床叢書들의 정신을 이으면서도, 邪氣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 「寒門」과 구별되는, 仲景 『傷寒論』만의 辨證방식을 최대한 살리는 편제라고 할 만 하다.

(10) 外科 分野

본 外科分野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한의학 외과질환으로 정의할 수 있는 癰疽나 發疹·潰瘍·疥癬 등 皮膚 및 肌肉 등

13) 服雲母法이나 服白石英法 등 石藥을 쓰는 養生術(服石)은 중국의 魏晉南北朝時代에 크게 성행하였다가, 그 부작용으로 인해 후세에 뛰어난 의가들에 의해 극렬한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인 醫家가 皇甫謐·孫思邈 등이다.

14) 실제 醫部の 「傷寒門」에 실려있는 全文은, 喻昌이 王叔和의 『傷寒論』編제의 부당함을 논박하고 새로 편집하여 註釋을 붙인 『尚論』이다. 喻昌은 淸初의 인물로 淸代 의학자 중 外感病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大家이니, 본 醫部の 外感病 편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5) 醫經註釋分野를 서두에 별도로 편제하여 한의학의 전체적인 이론을 개괄하고, 다시 각 病證별로 分門하여 서술하는 醫部 전체의 편제방식과 「傷寒門」에서 『傷寒論』 全文註釋本을 서두에 수제하고, 다시 세부분야별로 제가의 논설을 취합하여 수록한 형태는 유사한 점이 많다.

外體를 主病巢로 해서 外形的 變形을 일으키는 질환에 덧붙여, 물리적인 타격에 의해 일어나는 形體의 손상 즉 湯火傷이나 凍傷·金刃傷·蟲獸傷 등을 모두 외과 질환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질환들을 병증 중심으로 묶어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외과질환을 논하는 전문서적들의 편차방식을 살펴보면, 대강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본 醫部와 같이 병증 중심으로 편제를 잡아 진단 및 치법 등을 병기하여 기술한 책으로, 중국 元代 齊德之의 『外科精義』, 明代 陳白明의 『外科精要』와 薛己의 『外科發揮』 등을 들 수 있다. 하나는 부위를 중심으로 그 부위에서 발생하는 외과질환을 집중적으로 논술하는 방식으로, 중국 清代 吳謙 등이 편찬한 『醫宗金鑑』(1742) 중의 「外科心法要訣」¹⁶⁾ 등을 들 수 있으며, 하나는 치료법을 중심으로 편제를 잡은 중국 清代 凌旻의 『外科方外奇方』¹⁷⁾ 등이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같은 官撰書로서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본 醫部(1726)와 『醫宗金鑑』의 편제 방식이 아주 상이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논하였듯이 본 醫部는 病證 중심으로 편제를 잡고, 『醫宗金鑑』은 部位 중심으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두 가지 편제 방식이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어 선택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본다면 본 醫部는 『醫宗金鑑』처럼 편저자가 내용을 완전히 융회관통하여 요점만을 취한 성과에 비하여, 역대 제가의 醫說들을 종합하여 단순 분류하는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11) 婦人 分野

본 分野는 크게 11개의 門을 포괄하며, 일반인과 구별되는 婦人의 身體·生機의 특징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疾病 및 妊娠·出產 등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학습하고 응용할 수 있는 편제를 갖추고 있다.

이를 다시 관련있는 分門끼리 취합해 본다면, 크게 月經部(「經脈門」·「崩漏門」·「帶下門」), 生殖部(「子嗣門」), 妊娠部(「胎前門」), 出產部(「臨產門」·「產後門」), 諸疾病部(「諸乳疾門」·「前陰諸疾門」·「夢與鬼交門」·「交腸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月經部는 부인의 生殖器를 病巢로 하여 일어나는 月經과 관련된 질병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月經門’으로 호칭할 것을 ‘經脈門’으로 호칭하여 ‘經絡門’과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이유에 대하여 밝혀놓은 설명은 없다. 生殖部는 부인의 생식능력의 이상의 원인 및 진단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이는 남자의 생식에 대해 논하고 있는 種子分野와 함께 묶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전통적인 분류방식을 따라 본 분야에서 수록하고 있다. 妊娠部는 그 내용이 妊娠婦보다는 胎兒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出產部 중 「臨產門」이 비슷한 내용을 논하면서 妊娠婦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과 서로 대비되니, 편자의 고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婦人分野의 편제는 역대 다른 임상총서에 비하여 보다 세분화되어 있으면서도, 또 각 門에서 부인과 의 특징을 확실히 드러냄으로써, 학습 및 임상진료에 있어서 많은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12) 小兒 分野

소아분야는 크게 다섯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胎兒일 때 어미가 조섭해야 할 여러 가지 주의점을 중심으로 수록한 것으로 胎敎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小兒未生胎養門」), 하나는 태어난 후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수록한 것으로 嬰兒養生과 관련이 있으며

16) 「外科心法要訣」은 서두에 十二經脈의 流注部位와 癰疽의 여러 가지 順證 및 惡證,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처방 등을 概述하고, 조목으로 들어가서 ‘頭部·項部·背部·眼部·鼻部·口部·舌部·喉部……脛部·足部·發無定處……’ 신체의 각 부위를 上部에서 下部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그 부위에서 일어나는 외과질환을 묶어 기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7) 본서에서는 ‘昇降部·圍藥部·內消部·內護部·化毒部·拔毒部 등 21부로 分門하여 논술하고 있다.

(「小兒初生護養門」), 하나는 소아 질병의 진단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며(「小兒診視門」), 하나는 소아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에 관하여 수록하고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痘疹門」은 소아시기에 대동소이하게 거치거나 쉽게 이환하는 전염병 부류를 다루고 있다.

소아분야도 傷寒分野와 마찬가지로, 본 醫部 전체의 편제형식을 기본형태로 두고, 여기에 小兒分野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소아과 기초·임상 전서의 모범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전염병 부류를 제외한 소아분야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 편제 방식과 내용전개는 본 醫部 전체의 편제형태와 유사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소아만의 특징인 胎教部類와 養生部類를 제외한 나머지 질병 부류의 편제 방식 즉, 臟腑形證·診察·初生諸疾·頭目脣口手足 등 身形 각 부위의 病證·風寒 등 病因 중심의 병증·症狀 중심의 病證, 瘡瘍 등 외과피부질환에 대한 논술 등으로, 편제되어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痘疹部類는 그 분량만으로도 51권에 이르러 본 醫部の 1/10 정도에 달한다. 또 소아분야의 다른 부류와 분리된 독립적인 편집형태를 갖춤으로써, 당시 痘瘡이나 發疹·斑疹 등을 주 증상으로 하는 소아전염병이 소아의 생존에 얼마나 큰 위협으로 다가왔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이는 소아의 痘瘡과 비슷한 전염병 종류의 질환인 온역이 諸疾病分野 중 단지 하나의 門(「瘟疫門」)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傷寒門」의 처방이 360개인데 비하여 본 부류의 처방이 871개나 수록되어 있는 것에 비교해볼 때 더더욱 명확해진다.

(13) 總論·列傳 및 其他 分野

본 분야는 「總論」·「醫術名流列傳」·「藝文」·「紀事」·「雜錄」·「外編」 등 총 6개의 門을 포괄한다. 「總論」에는 『周易』이나 『禮記』 등 일반 經書와 『內經』·『古今醫統』 등 등 의학 名著 중에서, 의학의 이치나 格言 및 價値, 의사의 자세 및 倫理, 의학상식이나 주의사항 등

의사나 환자·보호자 등이 본받아야 할 名論說을 수록하고 있다. 「醫術名流列傳」은 중국 上古時代부터 明代까지 출몰한 유명한 醫師나 醫家 들을 시대나 왕조별로 분류하여 배열하고, 그들의 신상내력과 업적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설적인 名醫들인 僦貸季·岐伯·雷公·俞跗 등에 대한 기술도 들어 있다. 「藝文」은 의학의 중요성 및 의사의 행적이나 업적 등에 대하여 칭찬하는 문장이나 의료와 관련된 금기사항을 각인한 箴言들 중 名文들을 발췌하여, 의학의 聲價를 드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문장이 ‘扁鵲倉公傳贊’이나 ‘勸醫論’ 등이다. 「紀事」·「雜錄」·「外編」 등은 의학과 관련된 事迹이나 인물의 行蹟·傳說·逸話 등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발췌하거나 채록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특이할 만한 것은 本草의 藥性이나 효능 등을 수록한 本草分野나 經穴의 위치와 효능 및 鍼灸法 등에 대하여 논한 鍼灸經穴分野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病證이나 치료법에 있어서, 어떤 약물이나 처방 또는 경혈 등을 선택하여 치료한다는 내용은 보이지만, 약물이나 경혈 자체를 설명한 내용은 수록하지 않고 있다. 인용한 서적에 있어서도 李時珍의 『本草綱目』이 겨우 몇 번에 걸쳐 인용되고 있지만, 이 또한 本草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III. 結語

지금까지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으로 통행되고 있는 『欽定古今圖書集成博物彙編藝術典』의 ‘醫部’에 대하여, 編制 및 內容 등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었다.

본 醫部는 지금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간행본에서 ‘醫部全錄’으로 호칭하고, 또 ‘醫部全書’로 명명하여 출판한 판본도 일부 있지만, 『古今圖書集成』중 醫部를 회집한 것이므로 바른 명칭은 ‘醫部集成’으로 함이 마땅

하다.

본 醫部의 편제방식은 중국에서 이전에 출판된 여러 臨床全書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보다 130년쯤 전에 출판된 우리나라의 『東醫寶鑑』과는 編制나 收載方式이 대체로 유사하다. 또 『東醫寶鑑』을 인용한 대목도 다른 중국출판서적과 달리 10곳 이상에 보이니, 『동의보감』이 본서의 편찬목적과 편제형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주제에 따라 分野로 구분하여 맥락을 따져보고, 다시 각 門의 편제형식을 통찰하면 쉽게 짐작이 간다. 主題別로 나누어 보면, 醫經註釋分野·診斷分野·臟腑分野·身形經絡分野·運

氣分野·諸疾病分野·養生分野·種子分野·傷寒分野·外科分野·婦人分野·小兒分野·其他分野 등 13개의 분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門의 형식은 이러한 全文의 편제형식을 축소한 형태이다.

끝으로 특이한 점은 本草와 經穴鍼灸 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수록한 分野가 보이지 않으며, 단지 각 門別로 病證의 치료법을 匯集해 놓은 말미의 ‘單方’·‘復方’ 및 ‘鍼灸’ 등에서, 치료의 용례로서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색인어〉 古今圖書集成, 醫部全錄

참고 문헌

1. 樓英, 醫學綱目, 一社社 影印, 서울.
2. 吳謙 등, 醫宗金鑑, 大星文化社 影印, 1983, 서울.
3. 尹東里, 韓國醫學大系·草窓訣, 麗江出版社, 1994, 서울.
4. 醫方類聚 校點本, 人民衛生出版社, 1981, 北京.
5. 李梴, 醫學入門, 大成文化社 影印, 1989, 서울.
6. 趙佶,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1962, 北京.
7. 陳夢雷 등,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成輔出版社 影印, 1982, 서울.
8. 陳夢雷 등,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1988, 北京.
9. 陳夢雷 등, 圖書集成醫部全錄, 中國新文豐出版公司·大星文化社 影印, 1986, 서울.
10. 陳夢雷 등, 醫部全書, 藝文印書館印行.
11.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1987, 서울.
12.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4, 서울.
13. 東洋醫學大事典編纂委員會, 東洋醫學大事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서울.